

두정상 사흘간 최소 6차례 이상 만난다

공식회담 2차례... 오·만찬, 공연 관람 둘째날 거의 하루종일 함께 보낼 수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몇 차례 만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선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정상회담의 전례와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도 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식 정상회담 2차례를 포함, 환담, 오·만찬, 공연 관람 등에서 최소 6차례 이상은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 1차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첫날 순안공항 환영행사에 '깜짝 영접'을 나온 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차중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육로 방북을 택한 노 대통령은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남을 예정이어서 김 위원장이 이곳까지 내려와 영접을 나올 경우 '마지막 냉전지대인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정상 첫 만남'이란 역사적 이벤트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경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측 의전관례로 미뤄볼 때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첫 만남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노 대통령이 전용차편으로 개성-평양고속도로를 통해 평양시내로 들어서는 길목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의 첫 만남도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남쪽 언론에 공식환영식 장소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적시해서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오히려 자신의 동선을 극비보안으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이 공식환영식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환영행사를 마치고 정오 무렵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설 때 김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갖고 환담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하다.

하이라이트는 방북 둘째 날인 3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 국방위원장과 소수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단독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담을 마치고 5·1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데

이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측 인사들을 초청, 답례만찬을 베풀 예정이다. 이 자리에 김 국방위원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답례만찬 이후로 늦어질 경우 만찬 이후 두 정상이 합의문 서명을 위해 자리를 다시 함께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이렇게 되면 두 정상은 이날 하루를 거의 함께 보내는 셈이 된다.

노 대통령은 방북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남포 평화자동차 공장과 서해갑문을 돌아 보고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남 위원장이 베푸는 환송오찬에 참석한다. 이 오찬에도 2000년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

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0년 제1차 회담 당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독대시간은 모두 6시간20분이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행원들과 함께 오·만찬 및 서명식 등을 가진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0시간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참모진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노대통령, 성경룡 정책실장. /연합뉴스

■ 남북정상 담은점 다른점

노무현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약력	
1948.09.15 경상 김해 진영	1942.2.16 충청남도 홍성
180cm/62kg 연일에서, 7남매 부산고교 대전(1970)·연세(1971) 대학원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제19대 대통령	160cm/50kg 신원중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소탈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평화주의적 평화는 바람직하다	엄격한, 중의, 사의 소탈하고 직설적인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재정적 실용주의

소탈·솔직한 스타일 비슷 성장 과정·정치이력 차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화법과 스타일로 '대화'하게 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정상은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이며 진솔한 직접화법을 즐겨 쓴다는 점에서 '공감'이 맞을 것이라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과 정치이력, 스타일면에서는 서로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남북 정상 '솔직·직설화법' = 자타가 공인하는 '토론의 달인'인 노 대통령은 예뻐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도 소탈하면서 직선적인 화법을 구사한다는 면에서 노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는 이미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때문에 남북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솔직한 화법을 바탕으로 '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탈·솔직, 캐리커·스타일 '비슷' =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두 정상이 남북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이란 큰 틀의 의제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수(數) 싸움'이다.

노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은 나이가 각각 61세와 65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층에 속하며 머리회전이 빠르고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두 정상이 소탈하면서 직설적인 성격 갖고 있고, 결단력과 강단도 상당하다는 면에서 '통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전망도 상당하다.

◇성장과정·정치이력은 '하늘과 땅' =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남북의 최고지도자이지만 성장과정과 정치이력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노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정치관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딛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자형'이라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따라 권좌를 물려받은 '통대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회담 타진서 성사까지

정부가 지난 8월 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발표한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1일 현재 남북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제의하고 대표단의 오·만찬 일정, 참관지, 환영행사, 특별수행원 간담회 일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을 되짚어본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까지 =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북핵 6차회담에서 '2·13합의'가 도출되면서 부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 말 열린 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권호웅 북측 단장에게 2차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했고 이어 지난 7월 초 북측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한 후 극도의 보안 속에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6월말 BDA 문제 타결 → 7월 초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영남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8월초 김국정원장 밀사 방북 합의 北 호우로 한달 이상 연기후 성사

접촉 제안 → 7월 29일 북측의 김 원장 방북 초청 등 프로세스를 통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은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김 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월 2~3일에 이어 4~5일 2차례에 걸쳐 비공 개로 북한을 방문,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발표다.

김 원장은 1차 방북에서 김 통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 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2차 방북에서 노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함께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합의 발표 후 회담 성사까지 =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전격 발표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은 정상회담이 대선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복 갈등이 초래되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 내에서도 NLL이 '안보 개념'이나 '영토 개념'이나를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는 동안 정상회담 준비는 착실히 진행됐다. 남북은 지난 8월 14일 준비접촉과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노 대통령의 육로방북, 대표단 규모 등 대부분의 합의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에 내린 집중 호우로 당초 8월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이 한달 이상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정일 또 '깜짝 영접' 할까

군사분계선 마중·오픈카 퍼레이드 관심

7년전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 순안 공항에 나타나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자신의 농담대로 '은둔'에서 '해방'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접 방식을 통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연출해낼까.

깜짝 이벤트를 즐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스타일로 미뤄볼 때, 노 대통령이 걸어서 통과하는 군사분계선(MDL) 현장이나 북측 출입사무소(CIQ) 등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경계선 지역에서 영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전격 결정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데다 노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의 경계선 지역에서 노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남북한 경계선 지역에서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을 영접한다면 2000년 순안공항 영접보다 '통일'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등 여러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1차 정상회담 때 북측은 무개차를 이용한 카퍼레이드를 남측에 제안했으나 남측이 경호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북측이 이번에도 오픈카 퍼레이드를 남측에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만일 노 대통령과 함께 오픈카 퍼레이드에 나설 경우 그야말로 파격적인 영접이 된다.

황금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황금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동남아 중국 일본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동남아 중국 일본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
100% 국내산 송아지